

[보도자료] 쿠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위한 MOU 체결

2025. 4. 24.



(왼쪽부터) 전경수 쿠팡 전무와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속성장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5월 1일부터 착한상점 내 기획전 운영 약 230개 업체 참여

2025. 04. 24. 서울 - 쿠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소진공 대전 본사에서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전경수 쿠팡 전무와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 안태용 소진공 부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상생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성장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쿠팡 ‘착한상점’ 내 소상공인 운영 지원 ▲온라인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사업 및 성과 홍보 ▲기타 상생지원을 위한 협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MOU 체결 이후 첫 번째 후속 사업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쿠팡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착한상점’ 기획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에는 약 23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해, 쿠팡의 전용 상생기획관인 ‘착한상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우수 상품을 소개한다.



쿠팡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상점’은 중소기업인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마케팅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쿠팡 내 별도로 개설된 상생 전문관이다. 쿠팡은 ‘착한상점’을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기획전을 한 화면에 모아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비스 메인 화면에 고정 배치해 노출을 극대화하고 있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쿠팡 착한상점은 직접적인 매출증가에 이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 특별전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도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단과 쿠팡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수 쿠팡 전무는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쿠팡은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